

평협소식 2008 제15호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 777 2013, 757 7851 FAX 02 778 7427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08. 7. 4 발행인 : 한홍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08년 제1차 한국평협 상임위원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는 지난 5월 24일부터 수원교구 아론의 집에서 1박2일 동안 제1차



▲ 2008년 제1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각 교구 평협 임원과 수원교구 총대리 이용훈 주교와 기념 촬영

싣는 순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국평협 회원 단체〉

-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 한국가톨릭 경제인회
- ◎ 동정
- ◎ 교황님의 가르침

상임위원회를 갖고 평협 4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논의와 각 교구의 소식을 나눴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평협의 사회사도직연구소에서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연구한 평신도 교육실태 조사의 결과발표를 하는 세미나와 수원교구의 대표적 성지 중 하나인 수원성을 순례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용훈 주교는 강의를 통해 “경제 제일주의로 훌러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서 출세, 권력 지상주의, 생명파괴 등의 현상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우리 교회가 정치, 사회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한 사회 안에서 한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 따로 있고, 정치나 사회문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으로 사회교리가 있는 것”이라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사도직연구소 정찬남 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조은상 위원, 이상우 위원, 박순석 기획위원장과 변진홍 위원의 발표를 통해 각 교구와 단체의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에 대해 나누면서 교육의 현황을 정리하고, 축적하기 위한 제도와 정보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입을 모았고, 토론에 참여한 각 교구평협 대표들은 사회사도직연구소가 다음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편람의 제작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한국평협 40주년과 바오로사도 탄생 2천년을 맞아 선교에 더욱 힘쓰고, 사회에 희망을 주는 내용의 기념표어 공모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제2회 우리성가 작곡공모 시상식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해



▲ 제2회 우리성가 작곡공모 수상자들과 작사가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2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제2회 우리성가 작곡공모를 통해 접수된 66편의 응모작의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상금 200만원)으로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음악연구소장인 임석수 박사로 신부의 ‘기도’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작년과 같이 우리성가 노랫말공모를 통해 선정된 입상작들에 곡을 붙여 응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국내 평신도 작곡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가렸다. 심사 결과 우수상(상금 100만



▲ 사회사도직연구소의 각 교구와 단체의 교육에 대한 세미나



▲ 제2회 우리성가 작곡공모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음악연구소장 임석수 신부

원)에는 김은양 헬레나(서울대교구 압구정동 성당)씨의 ‘지존하신 몸과 마음’, 최윤희 세실 리아(서울대교구 둔촌동성당)씨의 ‘주님의 사랑은’이, 장려상(상금 50만원)에는 김희선 수산나(수원교구 안중성당)씨의 ‘주님의 사랑은’, 이찬영 디모테오(대구 가톨릭대 음악학부)씨의 ‘주님의 사랑은’, 허정아 헬레나(수원교구 광북성당)씨의 ‘주님의 크신 사랑’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작들은 지난 6월 19일 저녁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인 염수정 주교의 주례로 집전된 수상작 발표미사를 통해 미사의 전례곡으로 연주됐으며, 염주교는 강론을 통해 “창작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과 같다고 들었다”며 “그런 고통 중에서도 우리교회를 위해 성가를 만들기를 멈추지 말아 달라”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미사 중 진행된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을 대표해 서울대학교 작곡과 이돈웅 교수는 “대부분의 곡이 참가자들의 간절한 기도에서 나온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심사는 응모곡들의 신앙의 깊이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내용을 평가한 것”이고 “곡이 잘 되고 못 된 것에 따라 상이 결정된 것이 아

니라 다만 음악적인 부분의 차이로 상을 나눈 것”이라는 심사평을 통해 이번에 응모한 참가작들의 수준이 한층 높아졌음을 강조했다.

수상작은 악보집으로 만들어 각 교구평협을 통해 전국의 본당과 단체에 배포했고, 평신도 주일을 앞두고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 등 다양한 평협주최 행사를 통해 불리게 된다. 악보집은 한국평협 홈페이지(www.clak.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평협 사무국(☎ 02)777-2013으로 연락하면 받아볼 수 있다.

한국평협은 아름다운 우리말로 만들어진 성가를 통해 우리 정서에 맞는 친근한 성가를 부름으로써 전례의 토착화는 물론 신자들이 하나님과 더욱 일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우리성가 노랫말공모와 작곡공모를 하고 있으며, 현재 노랫말 공모가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평협 홈페이지를 확인하기 바란다.

창립 40주년 기념 표어공모

‘내탓이오’, ‘똑바로’ 등의 구호를 내걸고 사회 안에서 실천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는 창립 40주년과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선포에 앞장서 온 바오로 사도 탄생 2천년인 바로 대희년을 맞아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는 한편, 선교에 앞장서자는 내용의 표어 공모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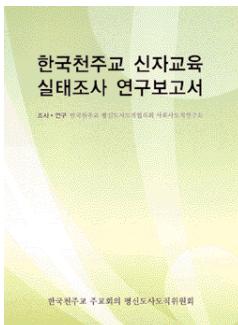
공모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표어는 16자 이내로, 바오로 사도 탄생 2천년을 맞아 복음 선포에 앞장서고, 자랑스러운 신

양인으로 거듭 날 것을 다짐하며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1인당 3편까지 응모할 수 있다.

응모된 표어는 9월 중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상금 50만원), 우수상 2편(상금 30만원), 장려상 10편(상금 10만원)을 선정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clak.or.kr)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국천주교 신자교육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제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회사도직



연구소(소장 오병선)는 작년 한 해 동안 진행해 온 ‘한국천주교 신자교육 실태조사’를 마치고 지난 5월 말 그 연구보고서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에 제출했다.

사회사도직연구소는 지난 해 5월부터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한국천주교 신자교육의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각 교구의 본당, 사도직단체, 수도회 등의 교육현황을 파악하고, 더 나은 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2008년 사무국 연수

한국평협 사무국은 지난 5월 2일부터 1박2일 동안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성우리조트에서 평협의 조직개편 이후에 새롭게 전개될 방향과 하반기 사업점검 등을 위한 연수를 가졌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서평 임원회의, 위원장 선임 임명장 수여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는 지난 6월 9일 위원회개편과 위원장 선임 후 첫 임원회의를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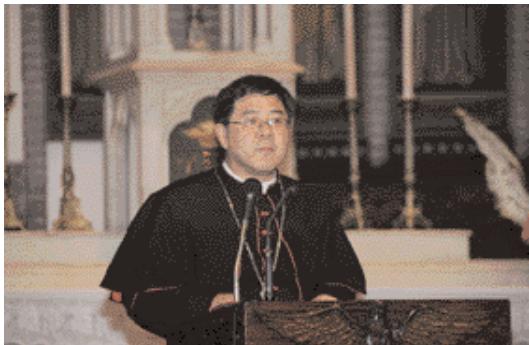


▲ 서울평협 담당 민병덕 신부가 이기연 부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위원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회장단에는 인준증을 위원장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평협은 ‘분과위원회’로 불리던 것을 ‘위원회’로 바꾸고, 지구와 단체는 특별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회의에서는 40주년 기념사업과 평신도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5월 4주간 성모성월 특강 실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5월 성모성월을 맞아 서울대교구 사목국과 명동성당과 함께 공동으로 4주간 특강을 마련했다. 5월 7일 최기산 주교(인천교구장)는 ‘성체성사와 성모마리아’, 14일 유흥식 주교(대전교구장)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신 마리아’, 21일 안병철 신부(서울대교구 사무처장)의 ‘바오로의 신학’, 28일 조규만 주교(서서울지역 교구



▲ 성모성월특강에서 강의를 하는 조규만 주교

장 대리)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첫 강의에서 최기산 주교는 성체성사의 기원과 성모마리아와 성체성사의 관계에 대해 강의하며 우리신앙의 중심인 성체성사와 성모마리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유흥식 주교는 가장 어려울 때 ‘엄마, 어머니’를 부르듯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어머니의 따듯한 손길과 사랑이 그립다며 예수님의 어머니시자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돌아가자고 강의했다.

세 번째 강의에서 안병철 신부는 바오로 사도의 신앙여정에 대해 말하며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부활 기쁨에 응답하는 삶이 곧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강의했다.

마지막 네 번째 강의에서 조규만 주교는 성경에 나타난 인간 존엄의 근거에 대해 설명하며 하느님 모상으로 태어난 자녀인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고 강의했다.

제3, 4차 선교포럼 행복한 선교 리더십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5월 10일과 6월 14일 3, 4차 선교포럼을 개최하였

다. 이번 선교포럼은 지난 3월부터 조은상 박사의 행복한 선교리더십을 주제로 이어오며 세 번째와 네 번째 마당 강의가 있었다. 매 회 150여 명이 참석하고 있는 선교포럼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자아 이미지를 개발함으로써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함을 강조하며 선교 다짐문을 작성하고 선교 역량 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등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선교포럼은 7월 19일 5차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며 파견미사를 봉헌할 예정이다.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 1학기 수료미사, 74명 수료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지난 3월 개강한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이 1학기 강의를 모두 마치고 수료미사를 봉헌했다. 수료 미사에서 총 74명이 1학기 수료증을 받았으며 지난 2007년도 2학기를 마치고 올 1학기를 수료해서 전 과정을 수료한 16명에 대해서는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명의의 수료증이 전달됐다.

총 15주간의 강의를 통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의미와 역사, 배경을 살피고 문헌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하



▲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 15주간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는 수강생

였다. 한편 2학기는 9월 2일 개강하여 12월 9일 수료한다.

〈서울평협 단체소식〉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성의회관 초대전에 교황대사님 전시관람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개관기념 초대전으로 서울가톨릭미술가회(회장 이광미, 담당사제 지영현 신부)가 5월 15일(목)부터 6월 19일(목)까지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에는 최종태 교수와 같은 원로작가를 비롯해 젊은 작가 등 104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였다. 전시내용은 서울가톨릭미술가회의 정기전과 마찬가지로 서양화, 한국화, 조각, 사진, 판화, 도예,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선보였다. 15일 오후 5시 성의회관 1층 중앙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지영현(시몬) 신부, 남궁성은(루카)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무부총장과 많은 외빈 및 작가들이 참석했다.

한편 전시 마지막 날인 19일 오후 4시 신임교황대사로 부임한 오스발도 파딜랴(Osvaldo Padilla) 대주교가 내방, 전시를 관람했다. 전시작품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작품내용들에 대



▲ 신임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와 미술가회 임원들

한 질문을 하는 등 미술가회에 대한 관심을 보이셨다.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작가들이 많이 참석하여 교황대사의 전시회관람에 감사를 표하고 작품집에 사인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

정기월례회 개최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회장 권경수,



▲ 6월 월례회에서 강의를 경청하는 회원들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는 지난 5월 27일(화) 정기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미사는 이동익 신부(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의 주례로 집전되었으며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특별히 '그라시아스 핸드벨 콰이어'를 초대하여 미사곡 전곡을 아름다운 핸드벨 연주로 봉헌하였다.

미사 후 이어진 특강에서 이동익 신부는 개악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담보로 하는 개악법은 난자매매를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교우들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생명수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6월 정기월례회는 6월 24일(화)에는 명동성당 소성당에서 담당사제인 민병덕 신부의 주

례로 윌례미사가 봉헌되었으며 ‘문학과 생명’이라는 주제로 성찬경 교수(성균관대 영문과)의 특강이 이어졌다.

성찬경 교수는 특강을 통해 생명활동의 최적의 장(場)은 인생이며 그러한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장르는 문학으로, 문학은 바로 ‘의미의 예술’이라 하였다. 또한 문학의 알파요 오메가는『신구약 성경』이며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하느님께 봉헌하는 가장 큰 작품이라고 강조하였다.

데 평신도가 앞장 서 세상 안에서 사랑을 전파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널리 전파, 선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08 까리따스 대축제』를 5월 5일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장대청소년 문화의 집을 비롯하여 교구 문화동호회들과 생활성가팀들이 참여하여 화합과 친교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었으며, 여성연합회에서는 간단한 음식판매를 하여 수익금을 후원하였다.

넉넉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후원한 후원금과 미사헌금 등 수입 전액은 청소년사목국과 사회사목국에 지원하였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08년 까리따스 대축제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윤성, 담당사제 임기선 신부)에서는 교구 설정 60주년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축제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나눔을 통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 2008 까리따스 대축제 미사와 공연

교구설정 60주년 기념 도보성지순례 참여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들은 교구설정 60주년을 맞아 지난 2월 23일부터 치러지고 있는 대전교구 설정 60주년 기념 도보성지순례에 참석하여 5월 17일 해미성지, 5월 31일 공주황새바위 성지, 6월 15일 지방리 성지를 순례하였다. 약 10Km~ 20Km에 이르는 길을 홀로 또는 같이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도보를 한 후 성지에서 파견미사를 드리는 일정을 모두 무리 없이 해내고 전대사를 받는 은총도 함께 누렸다.

특히 6월 15일 지방리 성지 순례는 마지막 성지순례라 많은 상임위원들이 참석하여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전교구 사랑의 생명나눔 소위원회 발족

대전교구는 교구 설정 60주년을 기념하고 70주년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생명을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소위원회(위원장 채수영 기획운영분과장)를 발족하여 현혈, 장기기증 등 ‘사랑의 생명나눔 운동’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현재 본당 회장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의 인준을 받은 상태이다.

이 모범 단체상을 받았고, 송현성당이 응원 단체상을 받았다. 이날의 대회는 테니스 동호인뿐만 아니라 많은 교구민들이 함께하는 사귐과 나눔의 잔치가 되었다.

2008년 제단체장 워크숍

6월 14일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에서는 교구 평협 산하 제단체장을 대상으로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일 워크숍 행사를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사무처장 하성호(사도요한) 신부의 ‘건전한 신앙관’이라는 주제 강의를 시작으로 각 조별 분임토의와 발표, 웃음치료 강의, 담당사제의 총평, 사무처장 신부 주례 파견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교구설정 100주년을 앞두고 각 단체의 활동 활성화와 사회복음화 및 직능별 기능강화를 목적으로 한 조별 분임토의와 발표는 각 단체 공동체를 통한 복음화의 실천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 총대리 조환길주교, 담당사제 김율석신부와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서 열렸다. 총대리 조환길(타대오)주교의 격려 사로 시작된 이번 대회는 선수와 응원단을 포함하여 6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직장대항 우승은 무학교등학교, 교회대항에서는 장성성당 A팀, 부부개인복식은 효자성당, 노년부 개인복식은 사동본당A팀 여성개인복식은 장성성당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 장량성당



▲ 총평을 하고 있는 담당사제 김율석 신부

<대구평협 단체소식>

‘2008년 성령쇄신 춘계 대구대회 개최

2008년 성령쇄신 춘계 대구대회가 5월17일 남산동 성김대전기념관에서 있었다.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워지기를’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대식신부의 초청강연에 이어 총대리 조환길 주교와 성령봉사 사제단 집전 특별미사 봉헌으로 이루어졌다.



▲ 총대리 조환길주교와 성령봉사 사제단 집전 특별미사

2008년 대구 가톨릭노동장년회 이주여성 쉼터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인 대구 가톨릭노동장년회에서는(회장 강판종, 담당사제 임종필 신부) 6월21일 가톨릭 근로자 회관에서 이주사목의 일환으로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자 ‘이주여성 쉼터 기금마련 일일 호프’ 행사를 마련했다. 임종필신부, 박상준신부의 공연이 함께 펼쳐짐으



▲ 그룹사운드 푸코와 가브리엘신부의 노래선물

로써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평협 위원 및 상임위원 임명식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신근, 담당사제 유영봉 몬시뇰)은 5월9일 제20대 마산교구 평협위원과 평협상임위원을 임명하고 발기대회를 가졌다.

교구장 안명옥주교는 강신근 교구평협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교구평협위원과 25명의 교구평협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변화와 쇄신을 통하여 교구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당부하셨다.

마산교구 평협은 평신도의 소명으로 무장하여 평신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새롭게 1처(기획사무처) 3국(사무국, 기획국, 총무국)을 중심으로 8개 분과위원회로 조직을 정비하여,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평신도 운동으로 평신도 사도직을 완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쇄신하였다.

마산교구 평협에서는 ‘VISION1030복음화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과 연구를 통하여



▲ 교구장 안명옥주교가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평신도 사도직의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교구단체들이 각 분과위원회와 함께 사도직 단체의 활성화를 이루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교구회장단으로는 회장 강신근, 마산지구회장 정종근, 진주지구회장 장재빈, 창원지구회장 김종길, 통영지구회장 김형옥, 수석부회장 손해규, 부회장 김우매, 손형도, 김황성, 기회사무처장 안상덕가 임명되어 새로운 평신도 사도직의 비전을 임태하고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교구합창축제

마산교구는 2006년 교구설정 40주년을 보내면서 오랜 숙원사업이던 ‘마산 가톨릭 교육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전 교구민이 기도와 땀과 희생을 아낌없이 봉헌하여 지난 2008년 6월14일에 교구장 안명옥 주교를 비롯한 교구 사제단과 수도자 그리고 교구민 3,600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마산 가톨릭 교육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경 속에 축성된 하느님 신비의 은총으로서 이 날의 큰 기쁨을 기념하며 축제로 승화하기 위하여 교구평협에서는 ‘교구합창축제’를 개최하였다.

교구의 4개 지구에서 선발한 6개팀이 참여하여 교구합창축제의 행복을 마음껏 나누며 교육관 봉헌의 은총을 체험하였다. 참가팀별로 아이디어 넘치는 안무와 장르를 초월한 가슴 벅찬 합창으로 하느님께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체험하였다.

특히 이날의 주제가로 선정한 교구장 안명옥 주교의 ‘홍도야 우지마라’는 전국 울뜨레아 원



▲마산 가톨릭교육관 봉헌 기념 교구 합창대축제

드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추어 전 교구민이 함께 부르며 춤을 추는 극적 이벤트의 효과로 교구합창축제의 절정을 이루었다. 이 축제는 일치와 화합을 지향하기 위하여 콩쿨형식을 배제하고 함께 자축하는 무대로서 연출하였다. 교구평협에서는 정기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가톨릭의 전례활성화에 기여하고 본당과 지역 공동체의 일치를 도모하며 평신도의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축제로 승화하기로 하였다.

회장단, 교구단체장 영성피정연수

마산교구 평신도 사도직 운동인 ‘VISION 1030 복음화운동’을 실천하면서 마산교구 평협은 지난 6월21일~22일까지 새로 봉헌된 ‘마산 가톨릭 교육관’에서 83명의 교구회장단과 교구단체장이 참석하여 ‘마산교구 회장단, 교구단체장 영성피정연수’를 실시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평신도 교령’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평신도의 소명으로 교구발전을 위한 지역복음화를 실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첫째 날 영성피정에서는 ‘하늘 길을 열자!’라는 주제로 묵상하였으며, 둘째 날 연수회에서는 ‘땅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 평신도’라는 주제를 통하여 마산교구 복음화의

비전을 실천하려는 결의를 묵상하였다.

첫 날 피정에서는 ‘선교사명과 바오로 영성’의 삶을 살기위하여 순명과 정결과 청빈의 정신으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수도자들의 삶을 모델로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는 묵상 프로그램으로 이끌었으며 성시간(성체강복)으로 우리 자신의 봉헌으로 영적기쁨을 마무리하였다.

둘째 날에는 제안1 ‘평신도의 소명’과 제안2 ‘VISION1030 복음화 운동’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그룹토의를 통하여 지혜를 모으고 그룹별 발표를 통하여 ‘하늘 길을 열수 있는 다짐’을 하였다.

피정을 마치면서 평신도 사도직 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교구 평신도사도직의 사업을 위한 예산배가운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하기로 하였으며, 교구평협 강신근 총회장이 “평신도의 소명으로 평신도의 사명을 다하자. VISION1030 복음화 운동에 모두가 동참하여 교구발전의 초석이 되자. 교구 평신도



▲ 둘째 날을 여는 아침기도와 주일미사를 봉헌하고 성전에서 다함께 기념촬영

사도직 운동에 모두 다함께 참여 하자”라는 사도직결의를 봉헌하고 1박 2일의 행복한 여정을 마쳤다.

광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 단체 합동산행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기수, 담당사제 김종주 신부)는 5월 10일 교구단위 제 단체 회장단 50여 명이 모여 등산으로 시작해서 무등산 천제단에서 담당사제 집전으로 산상미사를 봉헌했다. 이어 점심을 나누면서 친교를 다졌고 각 단체 소개 및 상호정보교환을 하였다.

<지구활동>

광산지구 사목협의회 및 제 단체 임원연수회



▲제 단체 합동산행 산상미사 후 기념촬영

광산지구평협(회장 천익출, 담당 송홍철 신부)은 5월 11일 월곡동성당에서 지구 내 본당의 사목협의회 임원과 단체 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를 실시하였다. 특강으로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의 주제로 김종주 루카(사목국장) 신부가,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의 주제로 조영대(보성성당 주임) 신부가 맡아 주었다. 이후 분과별 토의와 발표를 통해 각 본당 및 임원간 정보를 교환하여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동부지구 체육대회 개최

동부지구(회장 박상배, 담당 장세현 신부)는 5월 11일 광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지구 내 본당의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등 4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청백 대항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연수회 참석한 임원들

〈단체활동〉

운전기사사도회 창립 기념대회 개최

운전기사사도회(회장 최옥호, 담당 안성완 신부)는 5월 21일 창립 19주년을 맞이하여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교육원에서 기념미사와 나눔의 시간,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제25회 전국 가톨릭 공무원 피정

광주광역시청 로사리오회(회장 정선수, 담당



▲ 창립 기념 미사 후 기념촬영

김계홍 신부)는 6월 14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별들처럼 빛을 내십시오’(필립 2, 15)를 주제로 전국 시 · 도 가톨릭 공무원 및 가족 3,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25회 전국 가톨릭 공무원 피정을 개최하였다. 이날 “부부와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바라심”(예수고난회 김영익 신부)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고, 문화예술 공연 및 개회식, 죄창무 대주교 주례로 장엄미사가 이어졌다. 피정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가톨릭 신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여성산악인회 산상미사 봉헌

가톨릭여성산악인회(회장 위현숙, 담당 김종주 신부)는 6월 24일 산악회원 140여 명이 참여하여 무등산 늦재에서 산상미사를 봉헌하였



▲전국가톨릭공무원 피정에 전국에서 모인 가톨릭 공무원들

다. 특히 시각장애인선교회의 장애우들이 산악인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등반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구례 피아골 피정집 개원 축복식

광주대교구는 6월 12일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982-10에 ‘피아골 피정집’을 마련하여 개원 축복식을 가졌다. 산장 건물을 리모델링

한 피아골 피정집은 성당과 성체 조배실은 물론 샤워시설이 갖춰진 1~2인용 숙소 40개가 마련돼 있어 개인 가족, 소규모 단체 피정 및 연수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또한 피정집 주변에는 피아골 계곡, 화개장터, 섬진강, 구례 온천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피아골 피정집 원장 이준용 신부는 “다양한 피정과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라며 “기도와 휴식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말하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이용문의 : 061-782-5004)



▲피정집개원을 축하하며 내외빈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이병호 주교는 강론을 통해 금경축을 맞이하는 두 사제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후배 사제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는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고, 신자들에게는 모든 사제들이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축하식은 꽃다발과 선물 중정식,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축하식에서 박영규 신부는 답사를 통해 “50년간 늘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 드리며, 주님과의 일치된 생활을 늘 유지할 것과 사제성화를 위해 평신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정환 신부는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셔서 늘 어디서나 인간을 구원해주시고자 자비를 베푸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며 50년간 함께한 교구의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금경축을 맞은 지정환, 박영규 신부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지정환, 박영규 신부 금경축 축하미사 · 축하식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상근 담당사제 유장훈몬시뇰)는 지정환(디디에)신부와 박영규(바르나바)신부의 사제수품 50주년을 축하하는 금경축 축하미사와 축하식, 축하연을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 중앙 성당에서 교구 사제들과 수도자, 평신도, 가족들이 자리한 가운데 가졌다. 사제성화의 날 미사와 함께 진행된 축하미사는 교구장 이병호 주교의 주례와 교구 사제단이 합동으로 봉헌했다.

제11회 전주 ME가족 큰 나눔 잔치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소속단체인 ME 전주협의회(대표 이건태, 김기순부부, 담당사제 김정민 신부)는 지난 6월 6일 전주교육대학 황학당에서 전주교구 가정사목부 주관으로 제11회 전주ME가족 큰 나눔 잔치 행사를 가졌다.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강상근 회장은 축하인사에서 “주님 사랑안에서 백만송이의

장미를 하루하루 꽂피워 가듯 아름다운 장미로 이세상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 나가고 여러 ME가족 가정에 매일매일 하느님의 은총 충만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성가정을 만들어 가길” 기도 드렸으며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를 주제로 가진 이날 행사는 제1부 만남과 쉐링, 제2부 친교 및 오락, 제3부 미사 등 3부로 나누어 ME기와 배너 입장식, 환영사 및 축사, 주제발표, 부부대화(10/10), 친교 및 오락,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교구장 이병호 주교 주례의 파견미사와 ME 공로자 시상식 등 순서로 진행됐으며, ME 한국협의회 이윤식, 조윤숙 대표부부를 비롯해 각 교구 대표부부들과 임원진 및 전주교구 내각 본당 ME 가족 6백여 명이 함께했다.

시상식에서는 남원 도통동본당 ME 쉐링팀이 우수 쉐링팀 상을, 용머리본당 고동수, 전진희 부부가 감사패를, 호성동본당 송순영, 황인석 부부가 표창패를, 용머리본당 김정철, 홍동자 부부와 함열본당 김영활, 변영자 부부가 원앙패를 교구장으로부터 받았으며, 도통동본당 김정희, 윤재윤부부는 지도신부로부터 사랑패를 받았다.



▲ 행사에 참석한 ME가족들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 11기 3단계 기사교육

전주교구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단장 강상근, 담당사제 김진룡 신부)는 4월 26-27일 전북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천호성지 피정의 집에서 제11기 3단계 기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제11기 3단계 교육은 전주교구 사무처장 겸 문정본당 주임 윤양호신부의 「어둔 밤과



▲ 교육 후 기념촬영

십자가의 성요한」과 인후동본당 주임 박찬길 신부의 「레지오 마리애와 선교」, 강상근 레지아 단장의 「레지오 마리애의 신원과 정신」, 평화동본당 주임 문규현 신부의 「신앙과 생태위기」, 천호성지 피정의 집 관장 김영수 신부의 「레지오 마리애의 영성」, 전주 가톨릭신학원 교수 이정석 신부의 「교회의 기둥 베드로와 바오로」, 김진룡 지도신부의 「현대세계와 선교」 등 10차례의 강의와 성시간, 파견미사 및 수료식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부터는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교회内外에 생태 환경운동 전문가로 잘 알려진 문규현 신부를 강사로 선정,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이 생태운동을 잘 이해하고 지구의 환경을 살리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앙과 생태 위기」 강의 시간을 편성했다.

문규현 신부는 이날 강의에서 「환경운동은

사회운동이지 교회의 운동이 아니다’, ‘환경운동은 정치운동이다’, ‘환경운동은 배부른 자들의 유희이다’는 등의 환경운동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잘 돌보라는 말씀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에 앞서는 하느님의 명령』이라며 교황문헌과 요한 바오로2세의 회칙, 세계화 시대의 신 칠죄종 등을 예로 들며『환경 살리기 운동은 사회운동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신앙인들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이번 제11기 3단계 교육에는 2단계 수료자 84명이 참가했다.

한국평협 회원 단체 소식

레지오 마리애 서울무염시태 세나뚜스

레지오 학교 선교 과정 교육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단장 팽종섭,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는 5월1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7시 5주간에 걸쳐 레지오 학교 선교 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5월1일 첫날 정태영 신부의 ‘사도 바오로 전도 여행’을 시



▲ 레지오 학교 선교과정 강의

작으로 둘째(5월8일), 셋째(15일)는 이기정 신부의 ‘사이버 선교’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며,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넷째 날인 29일에는 팽종섭 그레고리오 단장의 ‘레지오 선교’에 대한 강의, 마지막 다섯째 날에는 담당사제인 민병덕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신부의 ‘공의회 문헌에 의한 선교’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이번 레지오 학교에는 223명이 신청하여 153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레지오 제1단계 교육을 부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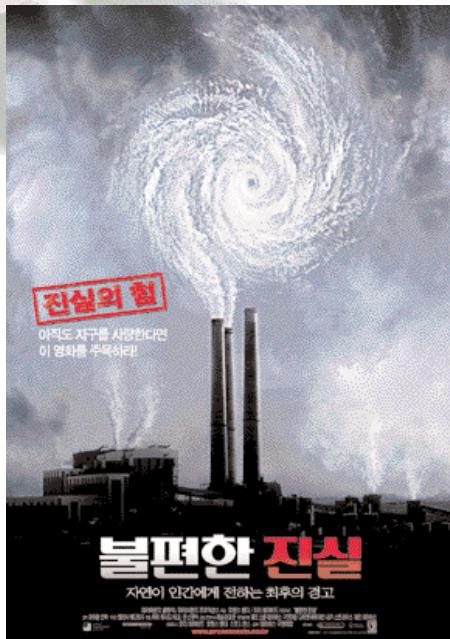
▲ 레지오 1단계 교육 후 수료생과 기념촬영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는 18년 만에 레지오 제1단계 교육을 부활하여 5월9일부터 11일 2박3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이번 제1단계 교육은 9일 박준양 신부가 구세사를 3강으로 나누어 강의하고, 10일에는 지영현 신부의 성사론과 이규성 신부로부터 교회론을, 12일에는 조광 교수의 순교자 영성을 끝으로 매큅지었다. 이번 교육은 너무도 오랜만에 실시하는 단계 교육이라 모두 진지하고 열심인 모습이 강의하시는 교수들로 하여금 레지오 마리애에 대한 새로운 앞날을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레지오 초급 간부의 교육과 정신 재무장을 목표로 하는 이번 교육은 120명이 신청하여 108명이 수료하였다.

좋은영화보기 영화 소개

‘좋은영화보기’는 영화탄생 100주년을 맞아 바티칸에서 선정한 위대한 영화 45편을 중심으로 미국 주교회의에서 1965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는 좋은 영화 목록을 더해 작년부터 서울평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복음화 사업입니다. 이번 호에 소개하는 ‘불편한 진실’은 지난 5월에 상영된 영화입니다.〈편집자 주〉

불편한 진실



감독 : 데이비스 쿠젠히임 주연 : 엘 고어

60, 70년대는 동서냉전에 따른 평화가 우리들의 시급한 주제였다면 현재와 미래는 환경이 가장 시급한 주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 온난화로 발생하는 기상이변 현상, 중앙아프리카, 중앙아시아의 급속한 사막화 현상은 경작지의 축소와 함께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은 전 미합중국 부통령 엘 고어의 환경에 관한 강연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가 현재와 미래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다양한 영상 언어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기술의 진보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안겨주었으나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의 소비를 촉진시키게 된다. 예수그리스도께서는 부자청년과 대화(미태 19:16-26)에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 가난을 선택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영화 불편한 진실’은 현재의 지구 환경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현재의 불편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심정을 꼬집고 있다. 가난한 삶의 선택을 권고 받은 부자청년이 자신의 재산을 버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현재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의 유혹을 던져 버리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화두를 예수님이 함께 ‘불편한 진실’은 우리들에게



산하 Cu. 부단장, 서기, 회계 교육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는 6월 10일부터 11일, 12일 사흘에 걸쳐 산하 420여 꾸리아의 그간 교육 미필이나 새로운 부단장, 서기, 회계 교육을 연례 교육을 실시하였다. 저녁 7시부터 실시한 첫날 10일 교육은 세나뚜스 한관섭 미카엘 부단장에 의해 162명의 부단장들이, 11일에는 정지오 세례자요한 세나뚜스 서기에 의해 149명 서기들이, 12일에는 한휘운 아네스 세나뚜스 회계에 의해 144명의 꾸리아 회계들이 교육을 받았다.



▲ 레지오 마리애 간부교육 수강생들

한국가톨릭경제인회

한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로 출범

한국가톨릭경제인회는 6월 4일 오후 4시 대구대교구청 꾸르실료 교육관에서 『2008 전국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9개 교구 회장단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전국 단위의 가톨릭경제인회 협의체 구성에 관한 것이었다. 1979년 한국가톨릭경제인회 창립 이후 29년간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와 한국가톨릭경제인회가 명확한 구분 없이 전국을 통합하는

기구 역할을 해 왔고, 각 교구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제인회를 설립하여 활동해 왔는데 작년까지 10개 교구에 경제인회가 설립되어 있었다. 한국가톨릭경제인회 창립 30주년을 목전에 두고 전국을 뚫는 협의체의 발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서울대교구가톨릭경제인회는 금년 초에 개최된 총회에서 한국가톨릭경제인회로부터 분리 독립하기로 결정하고 회칙 개정을 마친 바 있다.

이런 배경 위에서 기존의 한국가톨릭경제인회 회칙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15차 회칙 개정의 형식을 취한 이번 전국 회의는 전국협의체의 명칭을 한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로 정하고 회장 단선출과 임원 임명을 마무리하였다. 또한 시간 관계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여 회칙의 개정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대교구경제인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다.

협의체 구성 전, 한국가톨릭경제인회 회장 자격으로 개회 인사를 한 최철수 회장은 “그 동안 하느님께 받은 많은 은총을 어떤 방법으로 교회와 사회로 환원할 것인지 반성하고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각 교구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큰 도움이 되는 훌륭한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초대 ‘협의회’ 회장에는 최철수 서울대교구 회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고, 송병현 인천교구 회장과 김해권 부산교구 회장은 감사로 선출되었다. 부회장은 채용희 대구 대교구 회장, 신수길 광주대교구 회장, 서울대교구의 김철중, 신춘지, 윤대인, 최순정 부회장이

맡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전임 박광순 회장은 협의회 상임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서울대학교의 경영지원분과와 똑같은 특별위원회를 전국협의회에도 신설하고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회칙개정 이후 후속 사업 협의 등의 현안을 위해 협의회 전국회장단 임원회의를 7월 중에서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본회 담당사제이신 조학문 신부의 영명 축일을 맞이하여 6월 26일 명동성당 소성당에

서 임원과 회원들이 모여 축하미사와 조촐한 축하식을 마련하였다.

동 정

한홍순 회장 국제 학술회의 참석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 협의회 한홍순 회장은 지난 6월 11-13일 미국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가톨릭 대학교에서의 경영 교육”을 주제로 하여 개최된 제7회 가톨릭 사회 사상과 경영 교육 문제 국제 학술회의에서 “아시아 가톨릭 대학교에서의 선교사명 지향적 경영 교육”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 회장은 이에 앞서 5월 30-31일 폴란드 올스틴의 바르민스코 마주르스키 대학교에서 “다문화 사회에서의 지식과 정보 습득 권리”를 주제로 하여 개최된 제8회 인권 문제 국제 학술회의에서 “아시아에서의 지식 습득 권리와 인간 발전”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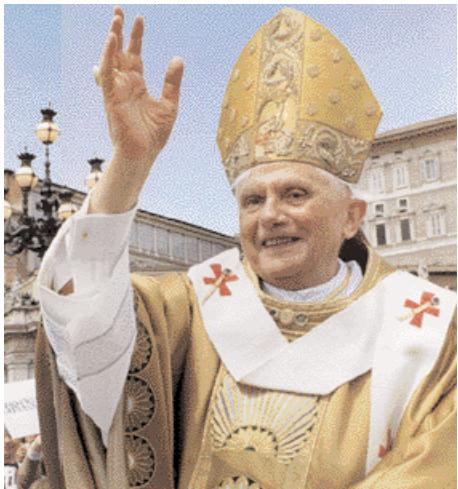


▲ 참석자 기념촬영

<교황님의 가르침>

다음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2008년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축일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하신 삼종기도 훈화말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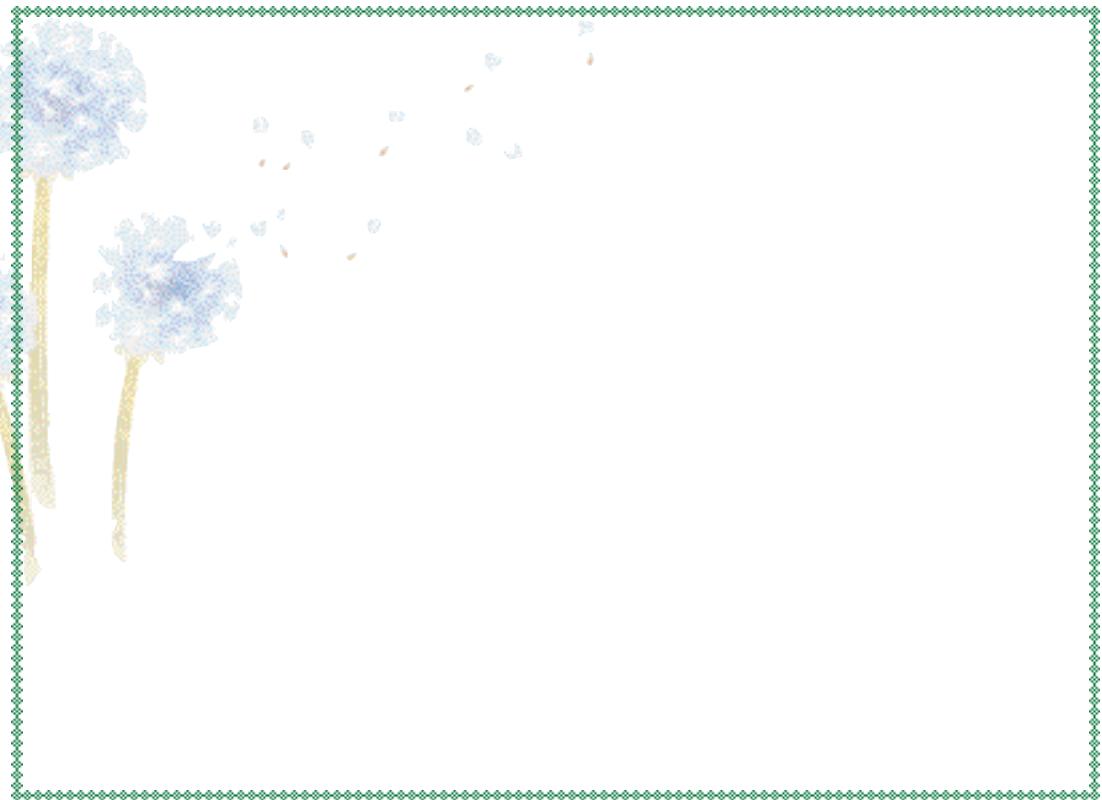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올해는 베드로 바오로 사도 축일을 주일 날 맞게 되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이 축일을 장엄하게 지냅니다. 이 축일을 이렇게 주일 날 지내게 된 것은 제가 어제 저녁 이방인들의 사도의 묘소에서 공식적으로 개막한 특별 행사, 곧 바오로의 해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바오로의 해는 2009년 6월 29일까지 지내게 됩니다.
사실 역사학자들은 후에 바오로가 된 사오로가 서기 7년에서 10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 약 2천 년이 지난 시기에 즈음하여 이 특별 희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희년의 중심은 물론 로마, 특히 성 바오로 대성전과 [바오로의] 순교지인 트레 폰타네입니다. 하지만 이 희년은 바오로의 출생지인 타르소, 지금의 터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성지,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풍랑을 만난 뒤 육지에 올라 복음의 씨를 뿌려 많은 열매를 맺게 한 몰타 섬에 있는 순례지들인 그 밖의 바오로 유적지들을 비롯하여 전 교회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바오로의

해의 지평은 전세계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오로 성인은 유대인들에 비해 한 때 “멀리 있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느님과 “가까워 진” (에페 2, 13 참조) 그런 사람들의 훌륭한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더욱 “작아 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 한 이 세상에서 성 바오로 희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선교사가 되라고 권고합니다.

이러한 순교적 차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그 “반석”인 베드로 성인이 대표하는 일치의 차원과 언제나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례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 위대한 두 분 사도들이 지닌 카리스마는 하나님 백성을 세우기 위해 서로 보완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일치하여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치라는 주제는 오늘 미사 중에 지난 한 해 동안 임명된 관구장 대주교님들에게 행한 전통적인 빨리움 수여 예절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마흔 분이 오늘 빨리움을 받았고 다른 두 분은 자기 주교좌에서 받을 것입니다. 이 분들에게 다시금 정중히 인사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대축일은 로마의 주교에게는 콘스탄티노플의 총주교이신 바르톨로메오 1세 성하를 맞이할 수 있어서 특별히 기쁜 날입니다. 이 분께 다시금 인사 드리며 이 분을 수행한 정교회 대표단의 모든 분에게 인사 드립니다. 바오로의 해, 복음화, 교회 안의 친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한 일치, 이러한 중대한 지향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지향을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사도들의 모후이신 자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님의 전구에 맡겨 드립시다.



2008 15호 100